

1. 구하는 기도만 하는데 괜찮은 건가요?

누군가 기도 제목을 물어올 때, 우리는 종종 망설이게 됩니다. 마음속에는 풀리지 않는 문제들과 간절한 바람들이 있지만, 혹시 너무 개인적이고 세속적인 기도만 나누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에 하나님께 간구해야만 한다고 말이죠. 건강을 위해, 앞에 놓인 어려움이 사라지기를 위해, 삶의 필요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마 6:11).

여기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기도의 본질은 단순한 '구함'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대상과 방향은 어디를 향하는가?"라는 것 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는 예수께 표적을 보여 달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요 3:3)라고 답하시며, 초점을 인간의 욕망 충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두도록 이끄셨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고전 1:22-23)라고 선언하며, 믿음 없는 표적 추구가 결국 신앙을 주술로 전락시킬 위험을 경고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신앙과 주술이 혼재되는 혼란이 존재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둘 다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는 것 같지만, 그 본질은 전혀 다릅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서 출발합니다. 신앙인은 하나님을 따르고, 그분을 즐거워하며, 그분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깊이 깨닫게 되지만, 이는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숙의 길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신앙은 단순히 무언가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 속에서 성숙과 해방의 기쁨을 누리며,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갑니다.

반면 주술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주술은 자기 자신을 중심에 두고, 자신의 욕망과 이익을 위해 신의 힘을 '이용'하려 합니다. 주술적 태도에서는 인간의 연약함이나 죄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옳다고 여기며 하나님을 도구화합니다. 하나님은 인격적 관계의 대상이 아니라 '힘'이 되고, 때로는 거래와 투자, 심지어 아부와 협박의 대상으로 전락합니다.

기도는 이 차이를 가장 분명히 드러냅니다.

주술적 기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그분과의 관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

편안함과 욕망의 충족만을 바라며 하나님은 그저 자신에게 복을 주는 자산이나 주술적 능력을 가진 존재로 전락시킵니다.

반면에 신앙인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합니다. 자녀는 아버지께 필요를 구할 수 있지만, 그 기도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로서의 관계 안에서 구합니다. 자녀의 기도는 아버지를 닮아가고자 하는 성숙의 자리에서 드러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 중에 아버지가 생선을 달라 하는 자에게 생선 대신 뱀을 주겠느냐”(눅 11:11)라고 말씀하시며, 자녀가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가 얼마나 안전하고 귀한 것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따라서 “병 낫게 해 주세요, 취직하게 해 주세요, 시험 잘 보게 해 주세요”라는 기도는 결코 잘못된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아버지 앞에 담대히 필요를 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고난 중에, 아픔 중에, 시험 중에 기도하라고 분명히 가르칩니다. 자신있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말이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만 그 기도가 단순한 욕망의 나열이 아니라, 아버지를 신뢰하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드러질 때, 그것은 참된 신앙의 기도가 됩니다.

결국 신앙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분과 교제하며 성숙과 해방의 기쁨 속에서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고, 주술은 하나님을 도구화하여 자기 욕망을 채우려는 태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아버지를 향한 사랑의 관계 안에서 드러지는 자녀의 간구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 속에서, 우리는 참된 신앙을 발견하고 성숙하게 됩니다.

2. 나눔

- 위 글을 읽고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면 서로 나누어 주세요.

→ _____

- 글에서 말하는 ‘신앙적 기도’와 ‘주술적 기도’의 차이를 어떻게 이해하셨나요?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남았나요?

→ _____

- 하나님을 ‘도와주는 분’이 아니라 ‘도구처럼’ 여겼던 순간이 있었다면 어떤 때였나요?

→ _____

- 나는 기도할 때 보통 어떤 방향에 초점을 두는 편인가요?(필요 / 해결 / 위로 / 하나님과의 관계 / 하나님 뜻 등)

→ _____

- 최근 했던 기도 가운데 “욕망의 나열”처럼 느껴졌던 기도나 “관계 속에서 드렸던 기

도”는 어떤 것이 있었나요?

→ _____

- 이 글을 읽고 앞으로 나의 기도 생활에서 변화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 _____

- 지금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나누고 싶은 실제적 기도 제목은 무엇인가요?

→ _____

3. 함께 드리는 기도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의 본질과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많은 필요와 고민 속에서 흔들리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아버지라 부르라 하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사랑에서 나오게 하시고, 무엇을 구하든지 아버지와의 관계 안에서 드리는 참된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각자의 필요와 고민을 아시는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